

達板 坊刻本 연구*

류 준 경

- | | |
|------------------|----------|
| 1. 들어가며 | 2) 七星堂書舖 |
| 2. 달판 방각본 목록과 양태 | 3) 在田堂書舖 |
| 3. 간행서포 | 4. 나가며 |
| 1) 廣文社 | |

1. 들어가며

방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된 목판본 서적으로, 그 기본적인 성격이 서민의 상업 출판이기에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천하다.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각소설에 집중되었다. 소설의 대중적 성격과 관련하여, 주로 고전소설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방각소설 이외의 방각본에 대해서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방각소설 연구를 위해 여타의 방각본을 주목하였을 뿐, 방각본 나름의 출판 문화사적 조망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방각본 나름의 독특한 특징과 그 문화사적인 위상을 천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출발한다. 하지만 방각본 출판 목록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현재의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¹⁾ 방각본 전반에

* 이 논문은 200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사실 방각본 중 많은 책들은 刊記가 없다. 간기가 없는 경우, 방각본인지 아닌지조차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방각본 목록은 소설을 제외하고는 간기가 있는 것만을 다룰 뿐인데, 간행연대조차 많은 오류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

대한 조망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따라서 일단 대구지역의 방각본(달판 방각본)만을 대상으로 목록과 서지적 특성, 간행소의 성격 등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달판 방각본은 그 존재 사실조차 최근에 알려졌으며,²⁾ 후속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판 방각본이나 완판 방각본의 경우는 일찍부터 주목되어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나, 달판 방각본은 그 존재만이 밝혀진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달판 방각본의 총목록을 작성하는데서 시작한다.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목록과 양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간행서포의 특징과 성격, 변모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판이나 경판과 다른 달판 방각본의 특징 등에 대해 점검토록 하겠다.

2. 달판 방각본 목록과 양태

달판 방각본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달판방각본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바 있다. 논자는 스스로 수집한 것을 대상으로, 대구의 방각업자들이 직접 판각한 총 13종의 달판 방각본을 제시하였다.³⁾ 그런데 대구의 방각소에서 판매한 목판본은 직접 판각한 것 외에도 다수의 서적이 있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각되지 않아 방각본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지만, 이후 방각소에서 인출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었기에 한편으로 ‘방각본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대구지역 방각소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출된 모든 서적을 일단 ‘방각본’의 범위에 넣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

진 방각본 출판에 관한 연구성과인 이혜경, 「조선조 방각본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9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연구』, 서울출판미디어, 2003에 제시된 방각본 목록에서 泰仁刊本の 경우 기존의 잘못된 간행연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泰仁刊本 방각본의 간행연대에 대해서는 김운수,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5·6, 1990 참조)

- 2) 류탁일, 「달판 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보』3, 서지학회, 1988. 이 논문에서 달판 방각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달판 방각본에 대한 조사와 논의를 좀 더 넓혀 보고자 한 것이다.
- 3) 하지만 영남감영판을 재전당서포에서 인출하여 재전당서포 판권지를 붙여 판매한 서적 세 종(『중용장구대전』, 『중용언해』, 『주자백선』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위의 책, 200~201면)

에서는 대구지역 방각소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된 모든 목판본들을 조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 서적을 살피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방각본으로 간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 방각업자에 의해 재인출되어 방각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대구지역 방각소에서 판매한 목판본의 경우, 다만 광고에서만 보일 뿐 필자가 아직 그 실물은 확인하지 못한 책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단 직접 확인한 책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광고 등의 주변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1) 牖蒙彙編

學部編輯局編, 木板本, 達城 廣文社 發行, 丙午(1906)年 新板, 上下 1책(17장), 半郭 20×16.5cm, 定價金新貨拾捌錢

『牖蒙彙編』은 국한문혼용으로 씌어진 아동용 교과서이다. 이 책은 대구 廣文社에서 간행한 것 외에, 목활자로 된 다른 판본이 있다. 이 목활자본은 대한 제국기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다.⁴⁾ 대구 광문사 간행 『유몽회편』은 바로 학부 간행 『유몽회편』을 목판으로 1906년에 다시 개간한 것이다. 대구 광문사에서 간행한 방각본은 이 『유몽회편』~하나뿐이다. 이후 대구 광문사는 신식활자로 서적을 간행한다.

2) 通學徑編

黃應斗 著, 木板本, 在田堂書鋪刊⁵⁾, 大正10年(1921), 上下 1冊(46장), 20.5×16cm, 南泌祐序(1918)

『通學徑編』은 黃應斗가 지은 아동용 한자교과서 및 訓蒙書이다. 『千字文』과 『類合』~등 기존의 아동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지은 책으로, 상편에서

4) 목활자본 『유몽회편』에는 간행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학부에서 편찬한 『尋常小學』의 뒤에 실린 “學部編輯局開刊書籍定價表”에 “牖蒙彙編 八錢”이라 기록되어 있다. 『심상소학』이 1896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유몽회편』 역시 이 무렵에 처음으로 간행되었을 것이다.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 아세아문화사, 1977, 468면)

5) 판권지에는 재전당서포가 간행한 것으로 나오지만, 해연서루 장판을 재전당서포에서 입수하여 판권지만 다시 새긴 것이다.

는 <天文>, <地軸>, <人倫> 등 13부분으로 나눈 후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배열 하였고, 하편에서는 여타의 서적에서 뽑은 한자어구들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훈몽적 성격의 글인 <銘心編>을 붙였다.

이 『통학경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판본은 1916년 간행된 석판본으로, 여기에는 당시 永川郡守였던 南泌祐의 서문만 있고, 발문은 없다. 판권지에 의하면 인쇄소는 大邱府 大和町の 萬盛堂石版印刷所이며, 발행소는 慧然書樓, 발매소는 新舊書鋪이다.

두 번째 판본은 1917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남필우의 서문과 유한필의 발문이 붙은 책이다. 내용은 1916년에 간행된 석판본과 동일하나, 유한필의 발문이 붙은 차이가 있다. 발행소는 영천 해연서루이고 발매소는 대구 永興書林이다.⁶⁾ 판권지에 의하면 1917년에 초판을, 1918년에 재판과 삼판을 발간했다고 한다.

세 번째 판본은 이전의 판본을 개판·증보한 목판본으로 1921년에 간행되었다. 글자마다 한글은 물론 일본문자[假名]로 음과訓을 달아 놓으며, 緒言, 日本文, 朝鮮文, 永字八法 등을 卷頭に 추가해 놓았다. 그리고 서문의 몇 글자를 바꾸고, 서문을 쓴 날짜도 大正7년(1918)으로 바뀌어 놓았으며⁷⁾ 본문의 각 부류에 속한 한자어도 조금 변모되었다. 특히 마지막의 <명심편>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변개되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 역시 두 번째 판본과 같이 해연서루 장판으로 발행소는 永興書林이다.

그런데 동일한 판본으로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은 판본이 존재한다. 판권지의 모습이나 발행일이 동일한데, 다만 印刷兼發行所가 해연서루에서 재전당서포로, 總發賣所가 덕흥서림에서 재전당서포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 판권지의 판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새긴 것이다. 따라서 재전당서포는 해연서루

6) 영흥서림은 방각본 출판사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스스로 책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연서루에서 책을 만들었고, 판매만을 영흥서림이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해연서루 역시 개인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마도 황응두의 택호가 아닐까 한다.

7) 이전 서문에서는 “大正五年三月日 永川郡守 南泌祐 序 新寧公立普通學校長 篠塚昇 校正”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이 본에서 “大正七年八月日 漆農南泌祐 序”로 바뀌었다.

에서 발행한 1921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이 판목을 입수하여 판권기의 발행인과 발매소만을 수정하여 다시 판매한 것이라 하겠다.

3) 保幼新編

(明)成無忌著,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隆熙3年(1909), 1冊(不分卷 49帳), 18.7×16.2cm, 乙巳(1905)盧光履序

이 책은 소아들을 위한 약방문을 모은 책으로 명나라 성무기가 지은 것이다. 盧光履의 서문에 의하며 1904년 가을 僧 正訓이 간행에 앞서 서문을 부탁하여 서문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 정훈에 의해 『보유신편』이 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목록을 통해 볼 때, 재전당서포 간행본 말고는 간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판권기가 새겨져 있는데, 출판법에 의해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목판 조성시에 새긴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隆熙三年(1909) 一月日 發刊 / 保幼新編 單 定價 五十錢 / 印刷所 大邱 在田堂書舖 / 發行者 大邱 在田堂書舖 金璣鴻 / 發賣所 京城 廣橋 滙東書館 高裕相 京鄉有名書舖

여기서 주의를 끄는 점은 바로 회동서관의 고유상이라는 인물이다. 재전당서포의 여러 판권지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의 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고유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유상은 대구의 다른 서포인 광문사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⁸⁾

4) 古今歷代標題注釋十九史略通攷

曾先之 編次, 余進 通攷,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刊記: 庚寅四月日 新刊, 1冊(卷之一 上, 23장), 18.5×17cm

8) 대구 광문사의 사주는 김광제인데, 김광제는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대구 광문사에서 발기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의연금 모집소 8곳을 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高裕相 서포이다.

이 책은 元의 曾先之가 編次하고, 明의 余進이 通考한 『십구사략』이다. 『십구사략』은 모두 9권으로 경상감영에서 두 차례 간행되었다. 그런데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한 『십구사략』은 경상감영본과 그 판이 다르다.⁹⁾

재전당서포가 판매한 『십구사략』은 모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卷之一 上 1책 25장. 간기 : 歲在庚寅(1890)薪田重刊,¹⁰⁾ 20.5×17.5cm

② 卷之一 下 1책 45장. 간기 : 辛卯(1891)孟春薪田重刊, 20×17.5cm

③ 위에서 언급한 권지일 상 1책 23장본

여기서 ①에는 재전당서포의 도장이, ②에는 재전당서포의 1913년 판권지가 붙어 있다. 그리고 ③은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은 판권기가 새겨져 있다.

庚寅四月日 新刊 / 定價金三十錢 / 著者 江鎔 / 印刷所 慶北大邱東上后面洞 在田堂書舖 / 發行所 大邱東上后面洞 六統十戶 在田堂書舖 金璣鴻¹¹⁾

그런데 이 판권기에는 두가지의 모순이 드러난다.¹²⁾ 여기서 庚寅은 1890년 인데, 경상도가 남북으로 나뉜 것은 1896년 6월이기에, 간행연도가 모순된다는 점이 하나이고, 저자인 江鎔은 사략과는 관련이 없고, 『통감절요』의 서문을 쓴 사람이라는 점이 나머지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점은 재전당서포 발행 『통감절요』에도 위와 똑같은 내용의 판권기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재전당서포는 薪田에서 경인(1890)년과 신묘(1891)년에 간행한 책판을 소유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경인년에 간행한 판목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롭게 개간하였는데, 이때 그 년도를 薪田에서 간행한 연도를 그

9) 류탁일, 앞의 논문.

10) 류탁일 소장본으로 판권지는 없으나, “慶尙道大邱東上後面洞 在田堂書舖 金璣鴻”이라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재전당서포에서 판매되던 책임을 알 수 있다.

11) 이 책은 국립도서관 소장본과 류탁일 소장본이 있는데, 이 두 본을 비교해보니, 류탁일 소장본의 경우 판권기에서 “정가금삼십전”이 지워져 있으며, 앞표지 내면에 1913년의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12) 이 점은 류탁일, 앞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재전당서포에서는 『십구사략』과 함께 동시에 『통감절요』도 개간하였기에, 실수로 『십구사략』의 저자를 강용으로 기록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통감절요』에다가는 『십구사략』과 동일한 연도의 간기를 새기게 된 것이라 하겠다.

5)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眉山 史炤 音釋, 鄱陽 王逢 輯義 京兆 劉剡 增校, 木板本, 在田堂書舖 發行, 刊記: 庚寅(1890)四月新刊(卷2, 卷5, 卷12), 壬寅(1902)重陽節 達刷洞新刊(卷50), 50권 15책, 18.1×15.5cm

『통감절요』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교과서로 사용되어, 많은 이본들이 있다. 하지만 전질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드문데, 재전당서포에서는 전질을 갖추어 판매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통감절요』의 경우, 모두 동일한 책인데 표지 이면에 재전당서포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런데 이 중 재전당서포의 판권기가 새겨져 있는 것은 제1책(1~2권), 제2책(3~5권), 제4책(10~12권)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책(48~50권)에는 “壬寅(1902)重陽節 達刷洞新刊 金英植家藏板”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1, 2, 4책에 새겨진 판권기는 내용이 모두 동일한데, 앞서 언급한 대로 『십구사략』의 판권기와 내용이 동일하다. 제3책 마지막장 마지막 줄 여백에 “定價金五十錢”이라고 새겨 놓고 있다. 판권기를 새길 만한 여백이 마련되지 않아, 가격만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전당서포에서 새롭게 간행한 것은 제1책~제4책의 총4책(1~12권)이라 하겠다. 그 이외의 11책은 김영직가에 의해 1902년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영직가에서는 15책 전부를 간행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재전당서포와 김영직가와와의 관계이다.

김영직가장판의 간기에 보이는 “達刷洞”은 행정구역에서 보이지 않는 명칭이다. “洞”과 같은 명칭은 1896년부터 1912년 사이에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 대구의 행정구역에 ‘達刷洞’이 보이지 않는다.¹³⁾ 이 시기 대구의 행정구역상洞名에 ‘刷’자 들어가는 것은 ‘刷還洞’ 뿐이며, 쇄환동이 소속된 西上面에는 達

13)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洞”이 자리 잡은 것은 1896년이지만, 이전 시기 관습적으로 “洞”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관습적인 고을 구획으로 “동”이 사용되었고, 따라서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洞名도 많다.

城洞이 있으므로 아마도 이 둘을 결합하며 만든 명칭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재전당서포 간행본 중 『동몽선습』과 『주해천자문』의 간기에 “刷還洞 在田店”이라 기록되어 있다. 쇄환동에 재전당서포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김영직가”가 재전당서포의 전신이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단 가능성일 뿐임을 밝혀 둔다.¹⁴⁾

6)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眉山 史炤 音釋, 鄱陽 王逢 輯義 京兆 劉剡 增校, 木板本, 大邱 七星堂書鋪刊, 大正6年(1917) 권1~2, 권10~12, 권20~24 3책(缺本), 19.2×17cm

이는七星堂書鋪에서 간행한 『통감절요』이다. 권2의 마지막장에 판권기가 새겨져 있고, 다른 책에는 판권기가 새겨지거나, 판권지가 붙은 것은 아니고 “慶北大邱鐘路 新舊學文並販賣 崔善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¹⁵⁾ 최선일은 칠성당서포의 서포주이다.

권1~2 1책과 권20~24 1책은 補刻本이며, 권10~12 1책은 新刊本이다. 권2 마지막 장에 새겨진 판권기로 보건대, 보각시기는 1917년임을 알 수 있다. 신간본 역시 이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칠성당서포에서 간행한 책은 『통감절요』만 확인된다.

그런데 권10~12로 구성된 책의 뒷면 배접지는 『논어』인데, 판심에 “論語集註大全十六 十三”이 기록되어 있어, 『논어집주대전』~16권 13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칠성당서포에서 『논어』도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7) 童蒙先習

朴世茂著, 木板本, 大邱刷還洞 金堪鴻在田店發行, 刊年未詳, 1冊(不分卷, 17장), 20.5×16.2cm, 定價金拾捌錢

14) 이는 재전당서포주인 김기홍을 조사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전당서포의 주소도 나오고 있기에 채적대장 등을 조사한다면 김기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기홍에 대한 추적은 후일의 과제로 삼겠다.

15) 도장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 확인하였다. 권10~12로 이루어진 책에는 도장이 崔善一이 아니라 崔善壹로 되어 있다.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을 한글로 현토하여 발행한 책이다. 내용은 여타의 『동몽선습』과 동일하다. 마지막 장인 17장에 “大邱刷還洞 金璡鴻在田店 發行 定價 金拾捌錢”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간기의 형태로 보아 재전당서포 발행 서적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8) 全韻玉篇

正祖命編, 木板本, 大邱, 戊戌(1898), 上下 2책, 20.2×16cm

『全韻玉篇』은 韻書인 『奎章全韻』과 짝을 이루는 字典으로 정조의 명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과 체제는 『康熙字典』을 따르고 있다. 정조 때 처음 간행된 이후, 방각본으로도 많이 간행되었다. 하권 마지막 장에 ‘戊戌(1898)仲秋 大邱新刊’이라는 간기가 있으며, 뒷표지 내면에 1913년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어, 1898년 대구에서 간행되었고, 1913년 경에 재전당서포에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98년의 간기가 반드시 재전당서포 간행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1913년 이전 어느 시기부터 재전당서포에서 본 책을 판매하였다고 하겠다.

9) 註解千字文

周興嗣 原著, 洪聖源 註解, 木板本, 在田店, 간년미상, 1책(32장), 21.9× 17.3cm

본래 『천자문』은 중국 梁나라의 주홍사가 지은 책인데, 『주해천자문』은 洪聖源이 이 책에 주석을 달아 1725년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다시 1804년 서울의 ‘廣通坊’에서 방각본으로 간행되는데, 광통방 간행시 새로이 주석을 첨가하여 新增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후 『주해천자문』은 광통방 외에서도 여러 곳에서 간행된다.

재전점(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된 이 『주해천자문』은 광통방에서 간행된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석을 그대로 차용하지만, 글자의 한글 새김은 다르다. 광통방 간행본이 아닌 다른 저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재전점 간행본에는 마지막 장에 “刷還洞在田店印刷所”라는 刊記가 篆刻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표지 내면에 大正2년(1913) 9월

의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刷還洞”이라는 명칭은 1896년 8道を 13道로 개편한 이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생겨난 명칭이다. 그리고 이 쇄환동은 1911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그 명칭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주해천자문』은 1896~1911년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部別千字文

滄西 撰, 木板本, 在田堂書鋪, 1925(?), 1冊(32帳), 19.1×13.2 cm, 靑牛(乙丑: 1925?)南至日撰者跋

이 책¹⁶⁾은 滄西가 지은 아동용 한자 교육서이다.¹⁷⁾ 주홍사의 『千字文』과는 달리, 먼저 天文, 地理, 人倫 등 각 부문의 제목에 해당하는 한자 40字가 나열되고, 이어 각 부문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나열된다. 즉 제41자부터 천문에 해당하는 日, 月, 星, 雲 등이, 제90자부터는 地理에 해당하는 海, 潮, 浦, 港 등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간기는 없지만, 대정2년(1913) 재전당서포 판권지를 통해 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1913년의 판권지가 붙어 있지만, 간행된 시기는 아마도 1925년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1913년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지만 이 판권지는 본문보다 훨씬 낡았으며, 인쇄자가 申孝然만 기록되고 옆의 李在守는 지워진 것으로 보아,¹⁹⁾ 이미 있던 옛날 판권지를 사용하여 붙인 것으로 보인다.²⁰⁾ 따라서 권말의 “靑牛南至日撰者跋”의 靑牛[乙丑]는 1865년

16) 이 책의 존재와 소장처(영남대학교 도서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옥영정 교수가 알려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7) 권수제 밑에 “滄西 撰而書”라는 기록을 통해 찬자가 창서이며, 직접 글자를 썼음을 알 수 있다. “滄西”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18) 물론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어 있다고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의 성격이나 판의 상태 등 여러 정황이나, 다른 판권지가 붙은 동일판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9) 여타의 1913년 재전당서포 판권지를 살펴보면, 인쇄자에 申孝然과 李在守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재수가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1913년 이후 어느 시기에 이재수가 재전당서포의 인쇄 관련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 그런데 이 판권지는 1913년의 다른 판권지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판은 조금

아니라, 1925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이 책은 1925년경에 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되었으나, 1913년에 판각된 판권지 판목에서 인출된 판권지를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11) 喪禮備要

申義慶 著,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刊年未詳, 上下 2冊, 21.3×17.8cm, 萬曆 庚申(1620) 金長生序, 戊子(1648) 金集後識, 天啓 辛酉(1621) 申欽跋

이 책은 조선중기의 학자인 申義慶이 『家禮』를 중심으로 고금의 禮書를 참작하고, 여러 학자의 禮說을 종합하여 새롭게 만든 실용적인 喪禮書이다. 처음에는 김장생의 서문과 신흠의 발문만으로 책을 만들었으나, 1648년에 김집이 새롭게 교정하고, 다시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 책은 상례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의 역할을 하여, 영남감영에서만도 1774, 1782, 1812, 1848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이 재전당서포본은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대정2년(1913) 판권지 등으로 볼 때,²¹⁾ 대략 1900년 즈음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2) 大學章句大全

朱熹 集註,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刊年未詳, 1冊(不分卷, 63장), 19.6×17cm, 英宗大王御製序(1758)

이 책은 영조어제서가 붙은 기존의 『대학장구대전』을 재전당서포에서 방각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기존 판본의 복각본이나 보각본이 아니라 새롭게 새긴 신간본이다. 이 책의 마지막장에는 다음과 같은 판권기가 새겨져 있다.

印刷所 大邱東上後洞 在田堂書舖 金璣鴻 / 發行所 大邱東上後洞 在田堂書舖 / 定價金壹圓貳拾錢

다르다.

- 21) 류탁일 소장본. 이 책의 앞표지 내면에는 “在田堂書舖支店 大邱府警□署前”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대구부경찰서 앞에 재전당서포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류탁일 소장본의 경우 대정 2년(1913)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13) 大學諺解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刊年未詳, 1冊(29張), 20.5×17.2cm

이 책은 官板 『대학언해』를 대본으로 재전당서포에서 새롭게 새긴 목판본이다. 류탁일 소장본의 경우 표지내면에 대정 2년(1913)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어있다. 『대학장구대전』간행시에 같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孝經大義

朱熹 刊誤, 董鼎 註,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1冊(55張), 刊記: 崇禎紀元後 三癸亥 十月日 泰仁 田以采朴致維梓

이 책은 주희가 刊誤한 책으로 만력 17년(1589) 柳成龍이 쓴 발문이 붙어 있다.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이 책은 1803년 전라도 태인에서 간행한 방각본을 그 저본으로 삼아 복각한 것으로, 태인간본의 간기까지도 그대로 새기고 있다. 류탁일 소장본의 표지 내면에는 대정2년(1913)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어 있다.²²⁾

15) 孝經諺解

木板本, 在田堂書舖刊, 간년미상, 1책(26장)

이 책은 『孝經大義』를 언해한 책인데, 經文만을 언해하고 있다. 표지 내면에 대정5년(1916)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²³⁾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을 빌려서 인출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재전당서포에서 『대학언해』를 간행하였고, 또한 『효경대의』를 간행한 것으로 미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대정5년(1916) 판권지가 붙어 있다.

23) 이 판권지는 『효경대의』의 판권지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류탁일 소장본 『효경대의』는 1913년 판권지가 붙어 있으므로, 『효경언해』 역시 1913년에 같이 판매되었으나, 총독부 납본으로 뒤늦게 제출하면서 1916년 판권지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루어볼 때,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리라 생각된다.

16) 佔畢齋先生門集

木板本, 밀양 禮林書院刊, 1892, 1책(63장), 19.4×16.7, 己酉(1789)...李獻慶序, 後序: 萬曆八年庚辰秋七夕後一日孫進士紐敢撰

이 책은 밀양의 예림서원에서 1892년에 간행된 총9책의 『점필재집』중 제9책이다. 이 책은 김중직에 대하여 쓴 여러 기록을 모아둔 것인데, 李獻慶의 <점필재선생문집서>와 <점필재선생연보>, <土禍事蹟>, <門人錄>, <신도비명>, <묘갈지>, <묘갈문>, <土禍錄>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표지이면에 편집검발행자 김기홍, 인쇄자 柳德弼, 인쇄소 禮林齋, 총발매소 在田堂書鋪 등이 기록된 신식활자로 만든 대정6년(1917)의 판권지가 붙어있다.

17) 中庸章句大全

胡廣 等編, 木板本, 1책, 22.3×17 cm, 序: 淳熙己酉(1189)...朱熹

이 책은 영남감영에서 간행된 것이다. 마지막 장에 “戊子新刊 嶺營藏板”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표지 내면에 대정2년(1913)의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18) 中庸諺解

木板本, 1책(61장)

이 책 역시 영남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 “戊子新刊 嶺營藏板”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표지 내면에 대정2년(1913)의 재전당서포 판권지가 붙어 있다. 영남감영판을 『중용장구대전』과 함께 구해 재전당서포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19) 朱書百選

朱熹 著, 正祖 編, 木板本, 6卷3冊, 22.4×13.2cm

이 책 역시 영남감영에서 간행된 것이다. 영남감영에서 출판한 책판을 입수 하여, 재전당서포에서 1916년 판권지를 붙혀 인출한 것이다.

20) 儀禮經傳通解補 卷之五

韓元震 編, 木板本, 大邱, 1805년, 23.8×18cm, 표제 : 大學或問

『의례경전통해보』는 南塘 한원진이 편찬한 책이다. 주희가 『의례』에 관한 諸說을 정리하여 『의례경전통해』를 짓고, 주희의 문인인 黃幹이 보충한 것이 『儀禮經傳通解續』인데, 한원진이 이들을 모으고 보완하여 지은 책이 바로 『의례경전통해보』이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742년이나, 간행은 이보다 후인 1805년에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金羲淳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영남감영에서 간행한 『의례경전통해본』 책판을 입수하여 다시 인출한 것이다.

이 『의례경전통해보』의 제5권은 주희의 『大學或問』이다. 따라서 『의례경전통해보』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학혹문』을 표제로 삼아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뒷표지 내면에는 신식활자로 인쇄된 대정5년(1916) 재전당서포의 판권지가 붙어 있으며, 가격은 60전이다.

21) 儀禮經傳通解補 卷之六

韓元震 編, 木板本, 大邱, 1805년, 23.5×17.8cm, 표제 : 中庸或問

이 책 역시 위의 17)처럼 영남감영에서 출판된 책판을 가지고 다시 인출한 책이다. 『의례경전통해보』 권지육은 주희의 『중용혹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판권지가 붙어 있지는 않고, “慶尙北道 大邱 京町一丁目 在田堂書舖 金璣鴻, 振替貯金 京城六二四番”이라는 내용의 도장이 찍혀 있다.

22) 儀禮經傳通解補 卷之七

韓元震 編, 木板本, 大邱, 1805년, 23.8×18cm, 표제 : 易學啓蒙

이 책(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역시 영남감영에서 출판된 책판을 재전당서포에서 다시 인출한 것이다. 표제는 『역학계몽』이고, 뒷표지 내면에 판권지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 판권지는 18)의 대학혹문과 같은 신식활자가 아니라 목판으로 새긴 대정2년(1913) 재전당서포 판권지이다. 이로 보건대, 이 『의례경전통해보』~권지칠(『역학계몽』)이 『의례경전통해보』~권지오, 육(『대학혹문』, 『중용혹문』)보다 먼저 인출되어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지금까지 실물을 확인한 달판 방각본 22종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²⁵⁾ 이외에도 방각업소에서 판매한 목판본은 더 있으나, 광고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기에 간행서포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살펴도록 하겠다.

3. 간행서포

현재 확인되는 대구지역 방각소는 셋이다. 광문사, 재전당서포, 칠성당서포가 그것이다. 광문사와 칠성당서포는 각각 1종의 방각본만을 간행했을 뿐,²⁶⁾ 나머지 대다수의 방각본은 모두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하였다. 이제 각 서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廣文社

광문사는 달성 광문사 혹은 대구 광문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1900년 玄采, 장지연, 梁在鏐 등이 만든 서울의 광문사와 이름이 같기에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광문사의 사장은 金光濟로, 국채보상운동의 발의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866년 충남출신으로 비서원승, 호남관찰사, 동래경무관 등을

24) 판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연도의 것이 붙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의 순서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총독부에 납본된 것이기에 아마도 위의 순서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25) 이는 대구지역 방각업소의 간행본과 발행본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새롭게 판을 새긴 것은 14종이다.

26) 칠성당서포에서 간행된 『통감』의 배접지에 사용된 『논어』가 칠성당서포에서 간행한 것이라면, 칠성당서포의 경우 2종이 된다.

27) 사장인 김광제는 현재, 장지연 등과 교류한 인물이기에, 현재 등이 광문사라고 이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광문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임하다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래경무관직을 사임한 뒤, 1906년 1월 대구에 내려가 광문사를 설립하고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때 광문사의 설립 목표는 교과서 편찬, 충효열행의 사적 수집 정리, 잡지발간, 관리의 정치와 백성의 선악 행위에 대한 보고 등이었다.²⁸⁾ 이러한 설립 목적에 의해 학부 교과서인 『牖蒙彙編』을 1906년에 간행한 것이다.

광문사는 『유몽회편』을 목판으로 간행한 후, 곧바로 신식인쇄기술을 도입한다. 따라서 방각본은 단 한 종만 간행하였다. 여러 목록들을 참고하여, 이후 광문사에서 간행한 책을 조사하니 다음과 같았다.

① 『萬國公法要略』(英 로렌스 勞麟賜 著, 美 알렌 영 林樂知 漢譯, 연활자본, 1906)

1903년 중국 上海美書館에서 간행한 『만국공법요략』을 1906년(광무 10) 11월에 다시 신식활자로 발행한 책이다. 본래 『만국공법요략』은 영국 Laurence의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한 책이다. 광문사 사장인 김광제는 이 책을 중간하면서, 앞에 追序를 붙이는데, 여기서 그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의 필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② 『商業學(全)』(장지연 역, 연활자본, 1907)

장지연이 譯述하고²⁹⁾ 張相轍이 교열한 책으로, 1907년 10월에 신식활자로 인쇄·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광문사에서 발행하지만, 발매소는 서울의 廣學書鋪(서점주 : 金相萬)³⁰⁾로 나타난다. 아마도 주로 서울지역의 학교에서 상업교과서로 쓰인 듯하다. 목록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이어지며, 서문이 없어 간행목적은 쉽게 알 수 없다.

③ 『中等算學』(李元祚 편, 연활자본, 1907)

이원조가 지은 수학교과서로서, 1907년(융희 원년) 10월에 달성 광문사에서

2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4일자.

29) “장지연 역술”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어떤 책을 번역했는지는 미상이다.

30) 광학서포는 김광제가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에도 관여한다. 대구 광문사문회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의연금모집소가 서울에 8곳 설치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광학서포이다.

인쇄되고, 大同報社에서 발행하였다. 대동보사는 서울에 있는 잡지사로서, 김광제가 광문사와 동시에 사장을 역임한 곳이다. 당시 이원조는 度支部 量地課 大邱出張所 數學教授였고, 김광제는 직접 이 책을 교열하고 서문을 썼다. 편자인 이원조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김광제의 요구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³¹⁾ 곧 김광제는 수학교과서 출판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원조에게 청탁하여 이 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이 대구 광문사에서 『牖蒙彙編』 이후 간행한 서적이다. 광문사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 방각본 간행을 시작한 다음 곧바로 근대적 출판인 신식활자 출판으로 변경하여 계몽운동의 맥락에서 교과서 위주의 출판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장인 김광제는 국제법관련 서적과 수학 교과서에 직접 서문을 쓰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광문사는 2년동안 단 4종의 책만을 간행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김광제의 이력과 관련된다. 김광제는 광문사에 廣文社文會를 조직하여 활동을 벌이는데, 1907년 2월 광문사 부사장인 徐相敦(1851~1913)과 함께 廣文社文會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한다. 이것이 『대한매일신보』 등에 보도되자 전국적인 호응을 얻게 되고, 김광제는 이 운동의 핵심멤버가 된다. 1908년 일본의 방해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김광제는 국채보상운동 과정에서 시작한 강연을 통한 계몽운동을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로 인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1907년 이후 광문사에서 더 이상 서적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광문사의 출판운동, 특히 방각본 간행 후 곧바로 신식활자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는 광문사의 부사장인 서상돈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상돈은 독립협회의 주요회원으로 활동한 민족운동가인데, 당시 대구지역의 경제를 좌우할만한 민족자산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광문사의 설립과 서적 발간은 대한제국기 관리 출신의 선각자와 대구지역 민족자산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대구지역 근대출판운동의 선구

31) 至於我□韓, 則昧其學而術亦未備, 人無從而知其妙矣. 何幸廣文社長金光濟氏, 先覺于此, 深慨于此, 屬不佞以盡其說而廣其教. (李元祚, <中等算學序>)

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七星堂書齋

칠성당서포의 주인은 崔善一, 刻手는 全文若, 간행한 서적은 대정6년(1917년) 판권지가 붙은 『통감절요』라는 사실 외에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七星堂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대, 東上面 七星里에서 서점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곳이 1914년 행정개편에 의해 “大邱府 京町一丁目 七番地”로 주소가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방각본 간행 서적은 하나밖에 확인되지 않지만, 『통감절요』(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찍힌 도장에 “慶北大邱鐘路 新舊學文並販賣 崔善一”라 기록되어 있고, 鐘路라는 행정명칭이 해방 후에 제정되는 것으로 보아, 해방 후까지도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在田堂書齋

앞서 살펴본 방각본 가운데, 『유몽회편』과 칠성당판 『통감절요』를 제외한 모든 달판 방각본은 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재전당서포가 바로 달판 방각본의 대표 방각소라 하겠다. 이제 방각본을 포함하여 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된 전체 서적의 종류와 간행시기별 특징, 그리고 경영주의 특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재전당서포 발행 서적

① 목판본

재전당서포는 방각본 출판에 이어 연활자본 출판도 진행한다. 그런데 연활자본 간행본 뒷면에 실린 광고를 보면 당시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하였던 ‘방각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전당서포에서 연활자본으로 1926년에 발행한 『周易注傳刷管』의 광고목록은 ‘本紙印刷部’와 ‘洋紙印刷部’로 나누어져 있다.³²⁾ 본지인쇄부는 바로 한지에 인쇄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정된 서적 곧 線裝

32) 『周易注傳刷管』과 함께 출판한 『毛詩傳注刷管』의 광고목록도 동일하다.

本을 의미하고, 양지인쇄부는 연화자로 인쇄된 洋裝本을 의미한다. ‘본지인쇄부’에 광고된 서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儀禮經傳通解補 全12冊 / 中庸具解 全2冊 / 大學具解 全2冊 / 孝經具解 全2冊 / 中庸或問 全1冊 / 大學或問 全1冊 / 易學啓蒙 全1冊 / 喪禮備要 全2冊 / 家禮增解 全10冊 / 小學增解 全5冊 / 保幼新編 1冊 / 史略 上下編 全1冊 / 通鑑全帙 全15冊 / 全韻玉篇 全3冊 / 退溪先生通吐 全3冊 / 通學徑編 全1冊 / 儀禮節要 全4冊 / 經髓三篇(大學,中庸,禮運) 全1冊 / 曲禮幼肄 全1冊 / 醫鑑重磨 全3冊

여기서 中庸具解 全2冊, 大學具解 全2冊, 孝經具解 全2冊, 中庸或問 全1冊, 大學或問 全1冊, 易學啓蒙 全1冊, 喪禮備要 全2冊, 保幼新編 1冊, 史略 上下編 全1冊, 通鑑全帙 全15冊, 全韻玉篇 全3冊, 通學徑編 全1冊 12종(15종)³³⁾은 앞서 확인한 자료들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자료 중 『註解千字文』, 『部別千字文』, 『童蒙先習』, 『朱書百選』, 『佔畢齋先生門集』 등 5종은 광고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들은 광고가 실린 1921년 이전에 판목이 훼손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책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광고 목록 중 儀禮經傳通解補 全12冊, 家禮增解 全10冊, 小學增解 全5冊, 退溪先生通吐 全3冊, 儀禮節要 全4冊, 經髓三篇(大學,中庸,禮運) 全1冊, 曲禮幼肄 全1冊, 醫鑑重磨 全3冊 등 8종은 여기서 새롭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제 이들을 살펴보자. 『의례경전통해보』에 대해서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1805년에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판목으로 다시 인출한 것이다. 이 『의례경전통해보』의 5, 6, 7권이 각각 『대학후문』, 『중용후문』, 『역학계몽』인데 『의례경전통해보』의 전질 판매에 앞서 이들 세 권이 먼저 판매되었다. 특히 『역학계몽』은 1913년의 판권지가, 『대학후문』에는 1916년 판권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학계몽』만을 먼저 인출하여 판매하다가, 1916년경에 『중용후문』, 『대학후문』을 새롭게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후 『의례경전통해보』 전질도 함께 판매

33) 『중용구해』, 『대학구해』, 『효경구해』는 3종이 아니라 6종이다. ‘具解’는 언해본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것으로 보인다.

『가례증해』 역시 재전당서포에서 새롭게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판각된 판목으로 인출한 것이다. 『가례증해』는 조선후기의 학자인 李宜朝가 『가례』를 해설한 책으로, 1824년 慶北 知禮 鏡湖書院에서 10책으로 간행하였다.³⁴⁾ 이 판목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경북 김천시 이현택씨가 소장하고 있다.³⁵⁾ 재전당서포 광고지의 책 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재전당서포는 지례의 경호서원과 판권을 맺어 이 서원 소장의 책판으로 『가례증해』를 인출·판매한 것이라 하겠다.

『소학증해』은 李珥가 편찬한 『小學諸家集註增解』로 모두 6권 5책이다. 그런데 이 『소학증해』의 책판도 지례의 금호서원에 소장되었던 듯하다. 181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冊板目錄』과 1840년에 작성된 『各道冊板目錄』에는 경상도 지례에 『가례증해』 10책과 『소학증해』 5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⁶⁾ 『가례증해』가 금호서원에서 간행되었고, 『가례증해』의 서문과 『소학증해』의 서문이 모두 동일한 인물(宋煥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금호서원에서 이들을 함께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전당서포는 이 금호서원과의 관계를 통해 『가례증해』와 함께 『소학증해』도 인출·판매한 것이다.

『의례절요』는 李圭駿(1855~1923)이 편찬한 책으로 『儀禮注疏節要』를 말한다. 李圭駿은 영일 사람으로 평생 迎日에만 살면서 經學과 醫學에 전념하였다. 저서로는 六經의 注疏를 刪定한 六經 26책, 經髓三篇 1책, 典禮 1책, 論語 3책, 孝經 1책, 唐宋古詩 1책과 石谷散稿 2책 등이 있으며, 의학 관련 저술과 제자 양성으로 유명한 인물로,³⁷⁾ 특히 『醫鑑重磨』 3책(목판본), 『黃帝素問節要』 2책(목활자본), 『本草』 2책(필사본) 등은 한의학에서 중요한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34) 지례에서 간행된 『가례증해』에는 송환기의 서문(崇禎後三壬子(1792)德殷宋煥箕序)과 정만석의 발문(時崇禎四甲申(1824)仲秋溫城鄭晚錫書)이 붙어 있으며, “板本在慶尙道知禮鏡湖影堂”라는 간기가 있다.

3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마 연안 이씨로 이의조의 후손이 아닌가 한다.

36) 정형우·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보경문화사, 1995, 1226면, 1283면.

37)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463~465면 참조.

이 『儀禮注疏節要』 역시 그의 경학에 대한 연구결과물로 간행된 것이다. 『儀禮』經文과 鄭玄의 注, 賈公彥의 疏를 刪定하고 부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특히 뒤에 <儀禮訂疑>上, 下는 『의례』의 해석에 관한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간행은 1922년 영일의 李圭駿 집안에서 이루어졌다.³⁸⁾ 이 책은 지금 경북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판본으로 모두 7권 3책에 별권 1책으로 총 4책이다.³⁹⁾ 이 책 수는 재전당서포의 광고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儀禮節要目錄>에는 총 10권이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7권뿐이다. 목록은 10권까지 기재하였지만, 4책으로 편집된 현존본으로 볼 때, 17권까지의 3책과 별본 1책 등 총 4책만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재전당서포 광고지에 나오는 『의례절요』 4책은 1922년에 이규준의 집안에서 간행하였고, 이후 재전당서포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한 것이다.

『醫鑑重磨』 역시 石谷 李圭駿(1885~1923)의 저서로, 『東醫寶鑑』 중에서 주로 자신의 醫說과 상통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것이다. “醫鑑重磨”라는 서명은 『동의보감』을 거듭 다듬었다는 의미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에 붙은 판권지에 大正11년(1922) 발행하고 石谷齋에서 인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922년에 이규준의 집안에서 『의례절요』와 함께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두 6권 3책의 목판본으로, 앞의 『의례절요』와 마찬가지로 광고가 나타나는 1926년 즈음에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하였다.

『經髓三篇』 역시 이규준의 저술이다. <中庸>·<大學>·<禮運>의 注疏를 모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중용>·<대학>·<예운>이 경전 학습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하여 『경수삼편』이라 이름하였다. 특히 이규준은 宋學이 아니라 漢學의 맥락에서 古注를 중시하는 면모를 보여 주목된다. <經髓三篇總論>에서는 宋學을 비판하는 면모를 보이고,⁴⁰⁾ <古本庸學原委>에서는 대학과 중용은

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에 인쇄소가 石谷齋로 기재되어 있다. 석곡은 바로 李圭駿의 號이니, 석곡재는 이규준의 집을 말한다.

39) 경북대학교 도서관 목록에는 大正11년(1922) 李採演 家에서 발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지를 보면, 발행소가 李圭演 家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圭”字는 기존의 “採”字에 붓으로 ×표를 하고 새롭게 써넣은 것이다. 李圭演은 1926년 재전당서포에서 발행되는 李圭駿의 3經에 관한 책인 『毛詩傳注刷管』, 『周易注傳刷管』, 『尚書傳疏刷管』의 校書員이기도 하다.

古本을 저본으로 하고, 주석은 鄭玄의 注를 위주로 하며 정현의 주에서 병폐가 있는 경우에만 주의의 章句로써 보충한다고 하였다.⁴¹⁾ 경상도 迎日에 문운 사람으로서 이처럼 주자학에 대한 반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醫學을 담당한 중간층⁴²⁾ 출신이며, 동시에 구한말에 이르러 중국의 漢學 계통 서적을 접할 수 있게 된 까닭일 것이다.⁴³⁾

그런데 이 책 역시 석곡재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1권 1책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에 대정12년(1923) 석곡재에서 발행하였다는 판권지가 붙어 있어, 1923년에 이규준의 집안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이후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하였다.

재전당서포의 광고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退溪先生通吐』와 『曲禮幼肄』이다. 『퇴계선생통토』는 퇴계의 저술 중 일부를 현토한 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곡례유이』 역시 예서의 일종인 듯한데, 아마도 이규준의 저서가 아닌가 한다.⁴⁴⁾ 이는 좀 더 자료를 뒤져야 알 수 있을 듯한데, 앞으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② 연활자본, 석판본

재전당서포는 방각본 외에 연활자본과 석판본 서적 역시 발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광고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40) 其要以性與天道爲先務 以窮盡萬物爲初程 心性爲二氣異物 仁恕爲敬義同途 杳冥恍惚不可窺測 此宋學之大較也 (….) 自是之後 讀者開卷 莫不茫然自失 如大洋汎舟莫知所適 (<經髓三篇總論>)
- 41) 竊悼夫斯文之湮晦 思欲以反本 先取庸學古本 注惟鄭氏是主 而其小疵者 則采章句以補之 猶或未盡亦付管見(<古本庸學原委>)
- 42) 이규준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뛰어난 의학으로 유명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의학에 종사하는 중인 출신 인물이 아닌가 한다.
- 43) 이규준의 이러한 학문경향은 재전당서포에서 연활자로 간행한 그의 삼경에 관한 저서인 『毛詩傳注刷管』, 『周易傳注刷管』, 『尙書傳疏刷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漢代의 주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아울러 자신의 의견[刷管]을 개진하고 있다.
- 44) 광고지의 맨 마지막에 『의례절요』, 『경수삼편』, 『곡례유이』, 『의감중마』가 나란히 있는 점이나, 예서의 일종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서 추측할 수 있다.

周易注傳刷管 / 尙書傳疏刷管 / 毛詩傳注刷管 / 眞本皇極策數 / 婚喪備覽
/ 筆鑑附眞草千字文

이들은 모두 유학의 기본서적이거나 서예에 관계된 서적들이다. 三經에 관한 책은 이규준의 저술이고, 『皇極策數』는 점복서, 『婚喪備覽』은 예서, 『筆鑑』은 서예 관련 서적이다. 이 외에 직접 확인한 연활자본 서적으로 『通鑑節要』의 句讀만을 기록해 놓은 『通鑑句解』(1917), 醫書인 『察病要訣』(1930), 『全體大用』(1929), 占卜書인 『靈龜訣』(1933)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석판본으로 지리지인 『永陽誌』(1935)를 발행하기 하였다. 다만 이 석판본 『영양지』와 연활자본인 『전체대용』은 판권지에 비매품이라 기록되어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문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재전당서포는 경상도 지역의 보수적인 한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유학관련 서적을 주로 간행하였다. 하지만 1930년 즈음에 연활자본으로 소설을 발간하기도 한다. 총 3종의 소설을 발간하는데, 『옥단춘전』(1929), 『권익중전』(1931), 『박효랑전』(1934)이 그것이다.

이상으로 재전당서포에서 간행한 서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전당서포는 직접 간행한 방각본 서적과 이미 존재하는 판목에서 인출한 서적, 그리고 연활자로 간행한 서적 등을 발행하였는데, 대부분 경상도의 보수적인 한학적 전통에 기반한 서적이 중심이었고, 1930년 즈음에 활자본 소설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2) 간행시기

재전당서포에서 전통적인 목판인쇄를 바탕으로 간행한 책들은 그 간행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간기에 재전당서포가 나타나지 않는 것.

十九史略 上下 (庚寅(1890) 薪田重刊, 辛卯(1891) 신전중간)

全韻玉篇 (戊戌(1898)仲秋 大邱新刊)

通鑑節要 (壬寅(1902) 重陽節 達刷洞 新刊)

② 재전당서포 간기가 나타나는 것.

童蒙先習 (김기홍재전점, 간행년미상)

註解千字文 (쇄환동재전점인쇄소, 간행년미상)

十九史略 상 (재전당서포, 庚寅, 판권기)

通鑑節要 1~4책 (재전당서포, 庚寅, 판권기)

大學章句大全 (재전당서포, 간행년미상)

保幼新編 (재전당서포, 1909, 판권기)

③ 재전당서포에서 간행되었지만, 간기는 없고 판권지만 있는 것.

喪禮備要(재전당서포 1913년 판권지)

大學諺解(재전당서포 1913년 판권지)

孝經大義(재전당서포 1913년 판권지)

孝經諺解(재전당서포 1913년 판권지)⁴⁵⁾

部別千字文(재전당서포 1913년 판권지)

④ 다른 곳의 판목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한 것.

中庸章句大全(영남감영판, 1913년 판권지)

中庸諺解(영남감영판, 1913년 판권지)

朱書百選(영남감영판, 1916년 판권지)

儀禮經傳通解補 5 : 대학혹문 (영남감영판, 1916년 판권지)

의례경전통해보 6 : 중용혹문 (영남감영판, 판권지 없음)

의례경전통해보 7 : 역학계몽 (영남감영판, 1913년 판권지)

의례경전통해보 1~11책 : (영남감영판, 광고지)

佔畢齋先生文集(예림서원판, 1917년 판권지)

通學徑編(혜연루장판, 1921, 판권지)

家禮增解 (지례 경호서원판, 광고지)

45) 『효경언해』의 경우, 여타의 官版과 비교를 수행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효경대의』를 방각한 것으로 보아, 『효경언해』 역시 재전당서포에서 방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넣었다.

小學增解 (지례 경호서원판, 광고지)

退溪先生通吐 (미상)

儀禮節要 (영일 석곡재, 1922년 판권지)

經髓三篇 (영일 석곡재, 1923년 판권지)

曲禮幼肄 (미상)

醫鑑重磨 (영일 석곡재, 1922년 판권지)

대체적으로 재전당서포에서는 대체로 ①에서 ④의 순서로 서적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대가 확실한 것은 1890년과 1891년에 간행한 薪田本 『십구사략』, 1898년에 대구신간의 『전운옥편』, 1902년에 달쇄동 『통감절요』이다. 재전당서포의 이른 시기 이름으로 생각되는 ‘재전점’이란 이름으로 간행된 것은 『동몽선습』과 『주해천자문』이 있다. 이들은 아마도 1900년 무렵에 출판되었을 것이다. 본문 마지막 장에 판권기가 새겨진 것 중 『통감절요』, 『대학장구대전』, 『십구사략』은 그 주소나 발행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판권지를 기록하도록 한 법은 1909년에 마련되는데,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발행자, 인쇄자, 주소, 발행시기 등을 모두 기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통감절요』, 『대학장구대전』, 『십구사략』은 모두 1909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9년 1월에 간행된 『보유신편』에서 보다 세련된 형태의 판권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감절요』, 『대학장구대전』, 『십구사략』은 『동몽선습』과 『주해천자문』이 간행된 이후부터 1908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간행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간기는 없고 다만 표지내면에 1913년 판권지가 붙은 『상례비요』, 『대학언해』, 『효경대의』가 간행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재전당서포는 법에서 정하는 바의 판권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은 1913년부터이다. “대정2년(1913) 9월 20일 인쇄”라는 정확한 시기를 명시한 판권지가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판권지가 붙은 서적은 1913년보다 이전시기에 이미 간행되었던 책이 분명하다.⁴⁶⁾ 그러나 간행된 시기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렵다. 방

46) 1909년에 출판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출판법에 따라 고서의 뒷면에 판권지를 붙이는 것은 보다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확인한 바로는 완판의 경우 서

각본의 경우 간기를 새기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면 아주 이른 시기(1880년대)에 간행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기가 새겨진 여타의 본들을 고려할 때 아마도 1900년~1910년 사이에 간행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서 간행된 판목에서 인출하여 서적을 판매한 경우, 그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용장구대전』과 『중용언해』, 『역학계몽』은 1913년 이전부터 판매하였고, 『주서백선』과 『대학혹문』, 『중용혹문』은 1916년 경에 판매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남감영판인데, 재전당서포는 영남감영과 혹은 영남감영에서 책판을 담당한 사람과 어떤 관련을 맺었기에 이들을 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김기홍은 1917년경에 밀양의 예림서원, 1920년 즈음에 지례의 경호서원, 그리고 1926년 경에 영일의 이규준 집안과 연결하여 『점필재문집』, 『가례증해』, 『소학증해』, 『의례절요』, 『의감중마』, 『경수삼편』 등을 발행·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김기홍이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위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원에 소장된 책판에서 책을 인출하여 판매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니지 않고는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3) 재전당서포와 간행 서적의 성격

재전당서포에서 발행된 책 중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보여주는 책은 거의 없다. 한문으로 된 방각본을 간행한 모든 서포가 그러한 면모를 보이지만, 재전당서포는 특히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다. 거의 모든 책이 이미 국가에서 간행되었던 책이며, 오락적인 성격의 책은 전혀 간행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의 방각본 간행 서포 중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면서, 한문방각본을 주로 간행한 ‘武橋’의 경우를 보자. 무교의 有刊記本은 『임진록』, 『옥주호연』, 『簡牘精要』, 『醫宗損益』, 『喪祭禮抄目』, 『候謝類集』, 『史要聚選』, 『類合』, 『剪燈新話句解』, 『千字文』, 『小學諸家集註』, 『明心寶鑑抄』, 『古今歷代十九史略通考』, 『儒脣必知』 등 총 14종이다.⁴⁷⁾ 이 중 『유합』, 『친자문』, 『소학제가

계서포의 1911년이 가장 이르고, 서울의 경우는 신구서림의 1913년이 가장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전당서포의 경우도 이전부터 방각본을 판매해 왔지만, 출판법에 따라 판권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1913년이라고 판단된다.

47)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157~158면.

집주, 『명심보감초』, 『사요취선』, 『사략』~등 6종은 (아동)교과서적인 성격을 띠고,⁴⁸⁾ 『간독정요』, 『의종손익』, 『상제례초목』, 『후사유집』, 『유서필지』~등 5종은 실용서이며, 『임진록』, 『옥주호연』, 『전등신화구해』~등 3종은 오락서이다.

재전당서포의 경우, 교과서적인 성격을 띠는 서적을 많이 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울의 ‘무교’와 비슷하지만, ‘무교’에 비해 실용서의 비중이 낮고, 소설 등의 오락서는 전혀 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인다. 특히 방각본의 경우 후대로 올수록 소설과 같은 오락서의 출판이 두드러지는데, 여타 지역의 방각본에 비해 가장 뒤늦게 방각본을 간행한 재전당서포에서는 오히려 소설을 전혀 간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재전당서포는 여타 지역의 보수적인 성격의 방각소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전당서포 간행서적의 이러한 보수적 성격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재전당서포 간행서적의 보수적인 성격은 후대로 올수록 더욱 강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점필재선생문집』, 『주서백선』, 『의례경전통해보』, 『가례증해』, 『의례주소절요』~등을 발행하는 사실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의례경전통해보』, 『가례증해』, 『의례주소절요』, 『곡례유이』~등과 같은 전통적인 의례서가 많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유교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영남감영, 지례의 경호서원, 영일의 이규준家의 판을 인출하여 판매한 것이다. 곧 보수적인 한학적 전통에 기반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서적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 지역사회와의 관련은 먼저 영남감영 판을 통한 서적 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전당서포는 『중용장구대전』, 『중용언해』, 『의례경전통해보』~등을 영남감영판으로 발행하였다. 이는 김기홍이 영남감영과 관련을 맺은 인물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점필재문집』의 발행에서 밀양 예림서원과의 관련을, 『가례증해』, 『소학증해』의 발행에서 지례 경호서원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이규준과의 관련이다. 김기홍은 이규준

48) 역사서인 『사략』과 『사요취선』은 아동용 교과서로 파악하기 힘든 면모가 있다. 특히 『사요취선』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많이 사용된 역사서이다. 하지만 『사략』은 가장 기본적인 역사서로 교과서적인 성격도 있기에 교과서로 함께 묶어 다루었다.

의 집안에서 간행한 『의감중마』, 『의례주소절요』, 『경수삼편』 등을 재전당서포에서 발행한다. 이외에도 이규준이 編著한 『주역주전쇄관』, 『상서전소쇄관』, 『모시전주쇄관』을 연활자본으로 간행한다. 재전당서포에서 발행한 이규준의 책이 7종이나 되는 것이다. 이규준은 경학보다는 의학과 관련하여 더욱 유명하다. 『의감중마』, 『황제소문내경』, 『본초』 등의 의학 저술을 남기며, 동시에 아들을 비롯하여 많은 제자를 한의사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규준은 의업에 종사한 중간층의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규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김기홍 역시 의업에 종사한 인물로 판단된다. 그는 『찰병요결』이라는 의서를 직접 저술하여, 1930년에 연활자본으로 간행한다. 그 서문에서 김기홍은 진맥과 침술, 뜸 등에 관하여 사람마다 설이 달라 어지러우므로, 옛날에 들었던 바를 기억하고, 여러 기록들을 널리 찾아 이 책을 편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김기홍은 “옛날에 들었던 바를 기억하여(強記舊聞)” 醫書を 편찬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의학 계통에 종사하였거나, 醫家 출신인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규준과 김기홍의 서적발행에서의 밀접한 관련은 동일한 의학 계통 출신으로서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한다면, 김기홍은 의업에 종사하였으며, 이전에 영남감영과 관련을 맺었던 인물로 판단된다. 특히 같은 의학 계통 출신인 이규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재전당서포가 보여주는 보수적인 성격은 한편으로는 영남지역의 지역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남지역의 의학 계통 중간층이 보여주는 보수적인 문화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⁴⁹⁾

또한 재전당서포는 연활자본 간행에 있어서도 영리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간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규준의 3경에 관한 저술을 간행하는 면모로 볼 때, 영리보다는 나름의 문화의식에 기반한 출판에 힘쓴 것

49) 이 보수성은 영남 양반층의 보수성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김기홍의 경우는 보수적인 학문경향을 묵수하는 바탕에서 출판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이규준의 경우는 경전에 바탕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학문경향을 띠지만, 일반적인 영남 양반층과는 달리 주자학적 해석을 탈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전당서포의 보수적 성격의 서적 간행은 영남 의학 계통 출신의 문화의식에 기반한 출판사업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으로 달관 방각본과 간행서포, 그리고 그 간행서포들의 성격 등을 살펴 보았다. 대구지역 상업적 출판은 재전당서포가 주도하였으며, 광문사 역시 짧은 기간이지만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들 두 서포는 대구지역의 출판운동의 두 가지 흐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전당서포는 경상도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적 분위기 아래에서 1930년대 이후까지 꾸준히 전통적인 서적을 간행하였고, 광문사는 가장 선구적인 출판운동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재전당서포로 대표되는 흐름은 의학 계통 인물이 출판업에 뛰어들어 전통적인 서적과 의학 관련 서적을 간행하여 과거의 문화를 지속시켰다면, 광문사는 대한제국기의 관료 출신 선각자와 민족자본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고민을 담는 서적을 간행하여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필자: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주제어 : 坊刻本, 達板 坊刻本, 在田堂書鋪, 廣文社

투고일(2005. 4. 30),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1)

참고문헌

- 김기홍, 『察病要訣』, 재전당서포, 1930.
- 김기홍, 『通鑑句解』, 재전당서포, 1917.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김윤수, 『泰仁坊刻本『詳說古文眞寶大全』과『史要聚選』』, 『서지학연구』5·6, 1990.
- 류탁일, 『달관 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보』3, 서지학회, 1988.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연구』, 서울출판미디어, 2003.
- 徐錫止, 『筆鑑』, 재전당서포, 1917.
- 邵康節 편, 『眞本皇極策數』, 재전당서포, 1919.
- 李圭峻, 『毛詩傳注刷管』, 재전당서포, 1926.
- 이규준, 『周易傳注刷管』, 재전당서포, 1926.
- 이혜경, 『조선조 방각본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9.
- 정형우 · 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보경문화사, 1995.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 아세아문화사, 1977.
- 『권익중전』, 재전당서포, 1932.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4일자.
- 『朴孝娘傳』, 재전당서포, 1934.
- 『靈龜訣』, 재전당서포, 1933.
- 『永陽誌』, 재전당서포, 1935.
- 『옥단춘전』, 재전당서포, 1929.
- 『全體大用』, 재전당서포, 1929.

<Abstract>

A Study on Commercial Wooden Printing Edition or “*Bangkakbon*(坊刻本)” Published in Dae-gu

Ryu Jun-kyoung*

The “*Bangkakbon*(坊刻本)” is the book published by wood-print for commercial profit. The important cultural meanings of “*Bangkakbon*(坊刻本)” publishing is in commercial publishing by common people, for common people. The studies of “*Bangkakbon*” Publishing in Dae-gu have little been accomplished.

In this paper we researched “*Dal-pan Bangkakbon*”(“*Bangkakbon*” published in Dae-gu) in respects of books and publisher. The main publisher in “*Bangkakbon*” Publishing in Dae-gu was Jae-jun-dang在田堂書鋪. And Kwang-moon-sa廣文社 made enlightening publishing-movements.

Key Words : *Bangkakbon*(坊刻本), *Dal-Pan Bangkakbon*(達板坊刻本), Jae-jun-dang在田堂書鋪, Kwang-moon-sa廣文社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